

한 벌 뿐인 옷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 인연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7)

속리의 공덕

사위국 어느 장자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흰 털 옷으로 몸을 감싸고 나왔다. 부모가 괴이하게 생각하여 관상을 보았더니 아주 길한 징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장자는 기뻐하며 딸의 이름을 속리(蘇離·얀나라 말로 희다(白)는 뜻)라고 지었다. 속리가 자라자 털옷도 몸을 따라 커졌다.

속리의 빼어난 미모는 익히 알려져 있던 터라 원근에서 청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속리는 혼인에 뜻이 없었다. 그녀는 출가에 뜻을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속리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저는 출가하려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그의 뜻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부모는 이내 털옷을 들어내고 다섯 가지 옷(五衣· 비구에게는 3의가지게 했고, 비구니에게는 5의를 가지게 했다.)을 만들려고 했지만, 여인은 부모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이미 완전하니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출가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부처님께서 가서 예배하고 출가하기를 청했다. 부처님이 그녀의 출가를 허락하시자 속리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고 입고 있던 흰 털옷이 이내 다섯 가지 옷으로 변하였다. 속리는 대야도를 스스로 모시고 정진하다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도의 도를 이루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속리는 본래 무슨 덕을 닦았기에 태어나면서 털옷이 함께 나왔고, 또 출가하여 도를 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 비바시 부처님 때의 일이다. 이때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공양을 많이 베풀었다. 단니기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두 사람이 가진 것이라곤 오직 털옷 하나뿐이었다. 때문에 만약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서 그 옷을 입고 가면 아내는 발가숭이로 있었고 만약 아내가 털옷을 입으면 남편은 발가벗고 앉아 있었다.”

권화라고 하는 어떤 비구가 다니다가 그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고 권하며 말했다.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는 어렵고 사람 몸은 얻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은 법을 들어야 하고 당신은 보시를 해야 합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다.
“바깥에서 사문이 우리에게 부처님을 뵈고 법을 들으며 보시를 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비록 우리에게 보시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보시를 할 수 있겠소?”

아내는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 털옷을 보시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당신과 나는 오직 이 털옷 하나를 번갈아 입으며 살아왔소. 만약 이것을 보시해 버린다면,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리하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이오.”

부인이 말했다.
“사람이란 나면 죽음이 있어서 보시와 상관없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보시한다면 죽은 뒤에 희망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입었던 털옷을 벗어서 비구에게 주었다. 비구는 축원을 하고 털옷을 받아 부처님께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그 털옷을 가지고 오나라.”

비구가 부처님께 털옷을 드리지 부처님께서 손수 받으셨다. 그런데 그 털옷은 더럽게 때가 끼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던 왕과 여러 대중들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서 그 때가 낀 털옷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대중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대중을 살피건대 이 털옷을 보시한 이보



삽화·강병호

나 있었지만, 보시를 하지 않고 죽으면 마침내 고통을 당할 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기뻐하면서 말했다.
“죽을 것이 분명하니 그럼 우리 보시를 하십시오.”

아내는 나가서 밖에 있던 권화 비구에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보시 책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시시오.”

비구는 대답했다.
“만약 보시를 하시겠다는 지금 당장에 보시하십시오. 그대들을 위하여 축원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단니기는 말했다.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입고 있는 이 털옷뿐입니다.”

다 더 깨끗하고 큰 보시를 한 이는 없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중들은 모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왕의 부인은 마음을 내어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어서 단니기에게 보냈고, 왕 또한 비단 옷을 단니기의 남편에게 보내어 법회에 나올 것을 청했다.”

부처님께서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가난한 여인 단니기란 이가 바로 지금의 속리 비구니이다. 그때에 청정한 마음으로 털옷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91겁 동안 태어나는 곳마다 언제나 털옷과 함께 태어났고, 모자란 바가 없었다.”(《현유경》 제7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37



사람 사는 모습

청학동 아이들을 보고

70이 넘는 지금도 나는 가끔씩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내 허물부터 살펴봐라. 남의 약점 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

생전의 아버님은 평소 자식들의 인성에 마음을 많이 쓰셨다. 그래서 좋은 말이나 좋은 글, 또는 당신이 생각하는 소신들을 종종 일러주시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화분에 화초를 키우듯, 숲에 나무를 키우듯 아버지는 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우셨다. 그리고 그 자식들의 바른 인성은 어른들의 바른 언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고 평소 당신의 몸가짐에도 마음을 많이 쓰시며 사셨다.

어느 시대나 자라나는 자녀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작게는 한 가정의 문제이고, 크게는 한 사회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정에 한 두 명의 자녀가 고작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녀들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내가 자라던 시절과는 또 다른 문제들이 부모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두 마디의 덕담이나 훈계가 훈육이 되고, 부모의 삶이 본보기가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집집마다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귀한 자식들이다

문명과 제도만으로 자녀교육 안돼

대한민국이 따뜻하게 기억되길

보니 냉정하고 객관적인 교육과 편답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해 과잉보호나 무관심 등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문제들이 사회전체로 쏟아져 나올 때 가정과 사회가 힘들어진다고 생각 한다.

얼마 전, 청학동의 김봉곤 훈장과 그 집 아이들을 TV에서 보게 됐다. 김 훈장의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과는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보통의 아이들이 누리는 문명의 이기나 환경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김 훈장의 아이들이 웬지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김 훈장의 아이들의 모습에선 그늘이나 불만을 찾아볼 수 없었다. 4남매의 아이들은 반듯하고 당당해 보였다. 나의 걱정이 쓸 데 없는 걱정이었다. 물론 TV를 통해 보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나의 걱정이 쓸 데 없는 걱정이었 듯 했다.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왠지 가슴이 벅차고 내 아이들처럼 대견해 보였다.

아버지가 두건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한복을 입고 시골에서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차림새에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고마워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예의바른 모습은 도심의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도 있었다.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청학동 김 훈장의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과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녀 교육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의 답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청학동의 아이들을 보면서 문명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청학동의 김 훈장 아이들의 모습이 조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모든 아이들을 청학동으로 보내자는 얘기는 아니다. 오늘날의 문명과 제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바라본다면 아이들을 문명과 제도 속에서 잠시 떨어져 있게 해보는 것도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절도 그와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깊은 산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조용한 절이 청학동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문화 가족을 생각하며

TV에서 ‘러브인 아시아’라는 프로를 보게 됐다. 꿈을 품고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들의 감동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어릴 적엔 외국인이라고 하면 마치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신기하게 보였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세계가 한 지붕이다. 오고감의 자유롭고 사는 곳도 다양해졌다.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족이 많아졌다. 같은 나라 안에서 살아도 자주 볼 수 없는 가족들도 많은데, 하물며 머나먼 이국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형제를 만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보게 된 그들의 사연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애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이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 부모형제를 열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마치 내가 겪고 있는 듯 따라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오랫동안 뵈지 못했던 사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묘소를 찾은 손주는 묘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다. 사는 모습은 다 비슷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보듬어 이웃이 되어주고 보살펴주어 그들이 더는 외롭지 않고, 그곳의 그리움을 이곳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은 모습만 다를 뿐 다 똑 같은 ‘인간’이었다. 행복하면 웃고 슬플 땐 눈물을 흘리는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인 것이다. 말이 달라도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같은 것이고, 생김새는 달라도 눈물을 흘리는 눈빛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한 인류임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처님 그늘에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타국에서 외롭고 힘든 그들에게 불교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불자로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검색



주소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 055)974-0033, 055)973-4006
상람 및 예약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